

2013.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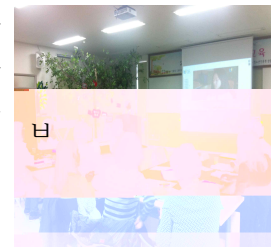
지난 주 7일에는 '수능'이라는 어마어마한 관문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 때 즈음이면 이번에도 혹시나 누군가가... 하는 불안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업과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험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의미가 아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의미의 시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그동안의 과분한 사랑을 감사하며 한 친구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과분한 사랑이 부담이었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자문해 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며... 월요편지를 시작해 봅니다.

센터에 경사스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식소그룹'이란 동아리를 운영했는데... 일명 '청소년 행복 지킴이' 모임입니다. 충청남도의 청소년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센터 그리고 정책연구 기관의 송미영 박사와 함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안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충남 도청에서 40여개의 지식소그룹이 운영되었고, 저희가 그 중 3등이란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몇십억씩 수익을 내는 쟁쟁한 연구 그룹이 많았는데... 이게 우찌된 일일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우리 위기청소년들이 관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마지 못해 시작했? 일이었는데... 우수 그룹에 포함되니 슬그머니 최우수를 기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인간의 욕심이란 한이 없나 봅니다. 제 욕심인가요? ^^



5일에는 자원상담원 선생님들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역량강화를 하느라 힘드셨네요. 오전에는 전화상담 슈퍼비전을 받느라... 오후에는 솔리언 또래상담 강의 시연을 진행하느라 진땀을 뻘뻘.... 늦은 공부이지만 위기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아기는 마음으로 학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행하느라 고생한 임정인선생님과 여러분 모두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에는 경기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연계망 구축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경기도이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선제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담아 줄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며... 충남에도 아이들이 마음을 부치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길 염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아쉽고 서운한 이야기를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센터에서 함께 고생했던 방진영 팀장과 이경복 선생님 그리고 유미나 선생님께서 사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각 자 개인의 발전과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떠나는 시간이지만, 떠나 보내는 남은 이의 마음으로는 한 구석 허전함과 속상함 그리고 미안함과 아쉬움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리더자로서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오랜 시간 함께 할 수도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머물러 함께 성장하지 않고 떠나가는 그네들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성장점이 되었으리라 믿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빌어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번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날개 짓을 하며 떠나가는 이들 사이로 우리 센터를 보금자리 삼아 날아든 반가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남옥 선생님이신데요, 집이 안양이라서... 좀 멀어 다소 걱정은 되지만 일하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고가는 출 퇴근 길이 지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무 료 - 시인 양광모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일출 무료
흰눈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없는 삶 무료...

오늘 월요편지 읽는 것도 무료~~~

연의순 선생님이 보내주신 양광모님의 '무료' 시를 전해 드리며, 추어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영의 올림